

楚辭〈招魂〉의 文化的 位相과 朝鮮의 受容樣相*

申斗煥**

- 차례 -

1. 問題의 提起
2. 〈招魂〉의 時代的 背景과 作品의 位相
3. 〈招魂〉의 文化的 位相과 朝鮮의 受容 樣相 分析
4. 結論

〔국문 초록〕

이 연구는 屈原이 지은 초사 〈초혼〉에 나타난 문화적 위상과 조선의 수용 양상을 중심으로 연구한 논문이다. 이 작품 속에는 영혼이 향유하는 사후세계의 다양한 문화가 독특하게 소개되고 있어서 흥미롭다. 초사 〈초혼〉은 문화의 원형과 변주의 시각에서 자세히 관찰하면 동양 고대의 문화연구의 보고요 심연이다. 이

* 이 논문은 2019년 11월 중국 맥라에서 열린 국제 굴원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이다.

** 안동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ilovestudent@hanmail.net.

것은 대부분 중국 전국시대의 생활상을 반영하는 풍부한 상상력이라서 더욱 의미가 있어 보인다.

초사〈招魂〉은 초나라의 샤머니즘을 비롯한 당대의 주거문화, 음식문화, 음악문화, 놀이문화 등, 중국 고대의 문화가 풍성하게 소개되어 있어서 인간의 죽음과 관련된 문화의 기원이 되고 있다.

이것은 동양 역사상 사후세계 다양한 문화 향유에 대한 최초의 창의력이었으며 사의 찬미에 대한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 주었다. 이것은 후대로 오면서 상례문화로 발전하였으며 한국을 비롯한 동양의 세계로 퍼져 나갔다.〈초혼〉은 후대 동아시아 문인들에게 흥미로운 작품으로 읽히면서 최근까지도 초혼의 주제의식은 다양한 장르의 문학작품을 비롯하여 영화, 대중가요 등 엔터테인먼트의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확산되고 있다.

초사〈초혼〉은 碑銘과 祭文을 비롯한 인간의 죽음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와 문학 작품 속에 수용되고 확산 되면서 동아시아의 碑誌類 등 다양한 예술 작품 속에 투영되어 있다.

주제어 : 굴원, 초사, 초혼, 문화, 조선

1. 問題의 提起

초사〈초혼〉은 중국 고대 초나라 샤머니즘의 보고로 사후 세계에 영혼을 인도하는 동양의 거대한 예술성을 총체적으로 창출하는 거대한 구판이었다. 세계 문학의 기원을 이야기 하면서 서구문학의 기원인 호머의 일리아드나 오딧세이는 이야기 하는 학자는 많지만 동양문학의 기원인 시경과 초사를 이야기하는 학자는 적다. 동양 문학의 원형을 논하면서 詩經을 이야기하는 학자는 많아도 楚辭를 이야기하는 학자는 적다.

기원전 6세기경에 공자가 황하를 중심으로 중화사상에 젖어 당시의 시가들을 산삭하여 2雅, 3頌, 15國風으로 정리하고, 교화적인 목적을 함의시켜『시경』을 제작한 것에 비해, 그로부터 약 100여년 후에 굴원은 중화사상에서 제외된 장강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남방의 시가들을 정리하여『초사』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초사는 산삭되지 않은 문화의 원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점에서 시경과는 다른 문학적인 원형의 가치가 있다.

세계문학의 기원을 언급하고 싶은 학자들은 동양고전의 원형, 계승 그리고 변주라는 조건 하에서 초사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초사〈초혼〉은 동양고전의 원형으로서 동양문화의 전범을 읽을 수 있고, 다양한 고대문화의 형상화 속에서 순수한 원시종합예술의 진면목을 관찰하면서 감동과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원형을 올바르게 복원한 뒤에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계승이 가능하다. 동양고전의 변주는 끝없는 반복학습과 외연의 확대 재생산되는 다양한 작품을 통해 동양고전의 정신을 심미적으로 향유하여 동양고전의 정신을 체득하는 데 집중하고 선택할 필요가 있다. 동양고전은 원형, 계승, 변주의 단계를 거치면서 인문정신을 함양하는 원천이 된다.

〈초혼〉은 문학의 기원에 대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형으로 손색이 없다. 동양고전은 끝없는 변주를 통해 이 혼란한 사회를 정화시키는 역할을 충분히 소화해낼 역량이 함의되어 있는 명편이다.

이제는 세계 문학의 원형을 찾아서 언급할 때 초사를 이야기할 때가 왔다. 초사 속에는 문학의 원형이 산삭되지 않은 채 아직까지 언급되지 못한 문학의 기원을 유추할 만한 중요한 작품들이 많다.

특히 초사〈초혼〉에는 중국 남방 예술의 원형이 될 만한 다양한 문화가 풍부하게 소개되고 있다. 이것은 중국 문학사는 물론 세계 문학을 논하면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楚辭〈招魂〉은 샤머니즘을 위시하여, 음식, 건축, 유희, 오락 등 다양한

문화를 풍성하게 묘사하고 있어서 이 방면 학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끈다.

楚辭〈招魂〉은 문화의 원형을 살펴보게 하는 중요한 작품이다. 굴원의 「초혼」은 우리 한문학 중 挽詞에 가장 영향을 끼친 작품이다. 그러나 초사〈초혼〉에 대한 연구는 몇몇 편에 그치고 있어 심화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¹⁾ 그것은〈초사〉에 대한 해석과 이해와 감상이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楚辭〈招魂〉을 중심으로 그 文化的 位相을 定立해 보고자 한다.

2. 〈招魂〉의 時代的 背景과 作品의 位相.

초사〈초혼〉은 인간의 죽음과 영혼의 문제며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상례라는 문화를 수반한다. 이 문화 속에는 당대 생활의 양식인 문화의 속성들이 생생하게 함의되어 있어 그 당시의 풍속이나 민속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자료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 초사 초혼에는 죽은 자의 영혼을 다루는 문제이며 초혼에 나타난 영혼을 불러오는 의식은 다분히 문화적이며 문학적이다.

2.1. 時代的 背景.

춘추시대(BC770~403)때부터 남방의 楚나라는 강국으로 등장했다. 莊

1) 유인영, 「楚辭,〈招魂〉篇의 儀禮에 대한 考察」, 석사학위논문, 西江大學校 大學院, 1987. pp.1-105.
유인영, 「楚辭,〈招魂〉篇의 儀禮에 대한 연구」, 『종교연구』, 제3집, 한국종교학회, 1987. pp.179-210
申斗煥, 「楚辭 招魂의 受容 과 擴散」, 『東方漢文學』, 제76집, 東方漢文學會, 2018. pp.133-166.
申斗煥, 「楚辭 '招魂'에 나타난 '地獄과 天堂'의 이미지」, 동북아시아 문화 학회. 발표 논문. 2019. 7. pp.55-65.

王은 九鼎의 무게가 얼마나 되냐고 물으며 周나라를 협박했다. 춘추시대 패권 초나라에게로 돌아갔다. 초나라는 일찍부터 춘추시대와 춘추전국 시대를 아우르며 강국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秦이 강국으로 등장하자 초나라의 懷王은 BC 318년에 魏·趙·韓·燕·齊와 동맹하는 合從策을 생각하여 진나라에 대응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진나라는 6국의 각각 나라들과 동맹하는 連橫策을 써서 초나라가 시행하는 합종책을 방해하고 치며 우두머리를 차지하였다.

초나라 회황은 BC 329년부터 BC 296년까지 재위하였다. 威王의 아들로 이름은 槐이다. 제나라와 합종하여 진의 공격을 막아냈다. 그러자 진의 惠王이 張儀를 급파하여 제나라와 절교하도록 유도했다. 장의는 상오의 땅 6백리를 주겠다고 했다. 그러자 회황이 땅을 탐내어 제나라와 외교 관계를 끊고 신하를 시켜서 상오의 땅 600리를 받아오게 했다. 그러자 장의는 약속한 땅은 6리라고 우겼다. 이에 회황이 진나라를 쳤으나 번번이 실패하여 영토를 빼앗겼다. 진나라 昭王이 회황을 하자는 속임수에 武關으로 들어간 회황은 진나라에 억류되고 말았다. 진나라는 소왕이 회황을 협박하여 초나라 땅을 빼앗으려 했으나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초나라 회황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탈출을 시도했으나 진나라의 군사에게 다시 잡혀서 진나라에서 암살을 당했다. 진나라 양왕 3년에 화친하여 회황의 시체가 초나라로 돌아오게 되자 초나라 백성들은 진나라에 대해 복수할 뜻을 품었다. 초나라 회황이 끝까지 진나라의 회유에 굴복하지 않고 버틴 것은 지조와 절개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대대적인 국가의식으로 장례식을 성대하게 거행하였다. 이때 회황의 혼을 불러오기 위해 초나라 사머니즘을 바탕으로 무당 巫陽을 시켜 招魂의 예를 행한 것으로 보인다.

2.2. 作者의 考證

이 작품은 작가는 굴원이라는 설과 송옥이라는 설이 양립되고 있다. 그러나 굴원이라는 설로 정해지고 있다. 西漢의 사마천은 『史記』, <屈原賈生列傳>에서, “내가 <離騷>, <天問>, <招魂>, <哀郢> 등을 읽어 보았더니 그 뜻이 매우 슬펐다.”라고 하여 <招魂>은 屈原(BC. 343~ BC. 278)이 지었다²⁾라고 하였다. 곽말약도 <招魂>은 屈原의 作品이라는 것을 고증하였다.³⁾ 동한 시대 王逸은 <招魂>을 宋玉(BC. 290~ BC. 222)이 지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문제점이 있다. 초나라 회왕의 영혼이 아니라 굴원의 영혼이 산실되는 것을 안타까워하여 지은 것이라고 하고 있다.⁴⁾ 고대 한나라 때부터 <초혼>에 대한 작자의 시비와 작품에 대한 평이 있어왔다. 송나라 홍홍조도 『楚辭補註』에서 <초혼>은 ‘송옥이 굴원을 애도하며 지었다.’고 했다. 주희도 송옥이 지은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조선 시대 문인들은 주희의 <초사집주>의 설을 바탕으로 대부분 송옥이 지은 것이라고 하였다.

만약 괴이한 이야기와 황음무도한 뜻이라면 어찌 굴원에게 허물을 따지겠는가? 초혼은 굴원의 혼을 문체 삼는 것이 아니다. 굴원의 작품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제는 초혼의 작자 시비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다시는 따지지 않는다.⁵⁾

<초혼>은 진나라에서 죽은 회왕의 혼을 불러오기 위해 굴원이 지은 것이다. 그래서 사당, 건축, 음식, 음악, 오락 등 즐거운 것들을 서술하여 부른 것이지, 만약 굴원의 영혼을 두고 지은 것이라면 이렇게 초혼하지 않고 충성과 도리로 혼을 불렀을 것이다. 송옥이 지었다는 것은 견강부

회이다. 이 작품은 대부분 굴원의 작품으로 이해하고 있다.

양계초는 <초혼>을 비롯한 초사는 한때 한 사람의 작가가 지은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추가하고 보완된 것으로 판단했다.

여러 설을 종합해 볼 때 작자는 굴원의 설이 우세하며 <초혼>의 내용을 분석해 볼 때 작품의 주인공이 초나라 회왕이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된다.

2.3. 作品의 構成

<초혼>은 총 1206자로 창작되었으며 270구로 구성된 장편 시가이다. 서두를 장식하는 <序辭>, <本辭>, <亂辭> 부분으로 일정한 체계와 형식을 갖추고 있다. <本辭>는 영혼을 불러오는 방법의 제시로 지옥세계를 그리는 공포와 극락의 세계로 혼을 인도하는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진나라를 지옥으로 상징하며 그곳은 영혼이 머물 수 없는 두려움의 공간으로 꾸며서 천지 사방 여섯 개의 단락으로 공포를 서술한 것이고, 뒷부분은 고국인 초나라로 영혼을 인도해 오기 위해 온갖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설정하여 초나라를 천당 혹은 극락정토로서 묘사하여 초나라에 있는 유희의 문화를 모두 나열하여 호소력 있게 표현한 것이다. 즉, 정치적 프로파간다로서 진나라와 초나라를 대척점에 두고 선과 악, 지옥과 공포의 대립적 구도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고도의 작품성으로 작자의 문학적 자질이 돋보이는 구성이다. <초혼>에는 처음부터 <序辭>와 <亂辭>는 없었던 것인데 뒤에 오면서 추가된 것으로 보고 있다.

<亂辭>는 결말 부분으로서 서론 본론 결론의 구성양식으로 그 논리적인 체계성이 발견된다. 초현실주의 사고와 고도의 문학적 허구를 통해, 낭만주의의 이상향에 도전하고 있다. <초혼>의 문학적 위상은 상상력과

2) 『史記』, <屈原賈生列傳>.

3) 郭沫若, 《屈原賦今譯》, 北京:人民文學出版社1981年3月. pp. 34-42.

4) 郭沫若, 《屈原賦今譯》, 北京:人民文學出版社1981年3月 pp. 34-62.

5) 周成華, 『先秦文學觀止』, 吉林大學出版社, 2010. pp.12-18.

건축미가 총 동원된 것으로 당대 건축미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궁실 및 주거 문화를 분석 할 수 있는 훌륭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지상과 현실세계의 건축미의 최고로 아름답게 꾸며낸 영혼의 안식처, 그것은 천상과 영혼의 세계를 천당과 극락의 세계로 인도하였으며 여종과 무사들이 등장되어 순장의 풍습을 엿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창출된다. 초사 초혼은 고대의 건축미와 생활의 양식을 엿볼 수 있는 고대 문화의 보고이다. 이에 대한 심화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은 사후 공간인식에 대한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샘솟게 하는 문화의 원형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초사 <초혼>은 고대의 보물로 가득 채워진 문화의 심연이자 보고이다. 초사 초혼 건축학 개론이자, 건축미의 걸작이다.

조선의 서거정은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총계는 깊고 그윽함이어 叢桂之幽幽兮
의란의 향기는 성하도다 猗蘭之馥馥⁶⁾

총계는 叢生하는 계수나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초사》〈招魂〉에, “계수나무는 총생함이어, 산의 그윽한 곳이로다. 어엿하게 길이 굽었음이어, 가지가 서로 얽혔도다.(桂樹叢生兮山之幽 偃蹇連蜷兮枝相繆)” 한 데서 인용하였다. 이는 원래 屈原의 닛을 부르는 말로서, 전하여 高潔한 隱士가 있는 곳을 의미한다.

비유컨대 저 언덕의 난초는 譬彼崇蘭
그 종자가 반드시 향기롭고 其種必馥⁷⁾

6) 『사가지집』, 제1권, 辭類, <秋風三疊辭>. 送濟州李安撫使.

7) 『문곡집』, 제18권, 墓碣銘, 9수, <珍山郡守宋公墓碣銘 并序>

원문의 ‘崇蘭’은 인품과 덕성이 고상한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다. 《楚辭》〈招魂〉에 “광풍은 혜초를 흔들고 저 언덕의 난초를 움직인다.[光風轉蕙, 汜崇蘭些.]”라고 하였다.

사방 천리 의관들 막 자귀에 모여들 제 千里衣冠初紫闕
오년 만에 혼백이 다시 수문에 들어왔다오 五年魂魄又脩門⁸⁾

‘脩門’은 원래 초나라 도읍인 郢의 성문을 가리키는데, 뒤에는 일반적으로 도성의 성문을 의미하는 말로 쓰였다. 참고로 〈招魂〉에 “혼령이여 돌아와 수문으로 들어오라.[魂兮歸來, 入脩門些.]”라고 하였다.

혜초 흔들는 갠 바람에 옷 그림자 산란하고 轉蕙光風衣影亂
죽 벌은 좋은 나무는 골짜 그늘을 옮기누나 拂雲佳木洞陰移⁹⁾

내 바야흐로 술을 사 들고 狼山으로 올라가서 동쪽 雲海를 바라보며 宋玉의 〈招魂〉을 암송하노니, 매천은 아시는가, 모르는는가? 중화민국 2년 舊曆 계축년(1913) 4월 보름에 南通에 사는 休寧 사람 黃開基는 쓴다.

임금께서 난방을 헤아리지 못하심은 蘭芳荃不揆
팽팽한 거문고 줄 조율이 제대로 안 됨이라 弦急調難和¹⁰⁾

‘荃’은 향초의 이름으로 임금을 비유하고, ‘蘭芳’은 난초 향기와 같은 賢臣을 비유한다. 《楚辭》〈離騷〉에 “荃不察余之中情兮 反信讒而齋怒”라고 하고, 《楚辭》〈招魂〉에 “結撰至思 蘭芳假些”라는 부분을 인용하였다.

8) 『지봉집』, 제13권, 洪陽錄, <洪陽洪州別名起戊申正月止己酉四月>

9) 『매천집』, 제1권, 詩, 壬辰稿, <端陽又會半山齋>

10) 『계곡선생집』, 제29권, 五言律 148수, <贈別淸陰歸石室>

3.2. <女色과 遊興文化> ; 化粧과 여인의 美貌 享樂의 文化原形

九侯淑女 多迅衆些 아홉 제후들의 예쁜 딸들이 빠르게 무리지어 많이도 오가네

盛鬢不同制 實滿宮些 귀밑머리 치장법도 가지가지 실로 궁을 가득 채웠구나.

容態好比 順彌代些 아름다운 자태 즐비하게 따르며 정성을 다해 번갈아 시중을 드네

弱顏固植 審其有意些 얼굴은 유순하고 심지는 굳으니 아! 정성이 넘치네

娉容修態 絙洞房些 아름다운 여인들 깊은 방 안에 가득하네

蛾眉曼睩 目騰光些 아름다운 미인들 그윽하게 바라보니 두 눈이 초롱초롱하네

靡顏膩理 遺視眇些 고운 얼굴 아름다운 살결 그윽한 눈길 밝게 빛나네

離榭修幕 侍君之間些 크고 높은 정자, 커다란 휘장으로 그대의 한가로움 곁에 서 모시네

翡翠翠帳 飾高堂些 비취로 장식한 휘장으로 높고 큰 堂을 아름답게 꾸미네

紅壁沙版 玄玉梁些 벽은 붉은 빛으로 장식하고 대들보는 검은 옥으로 만들었네

仰觀刻桷 畫龍蛇些 서까래의 조각을 자세히 쳐다보니 용과 뱀이 그려져 있네

坐堂伏檻 臨曲池些 堂 위에 앉아서 난간을 굽어보니 굽이굽이 연못들이 보이네

芙蓉始發 雜芰荷些 연꽃은 막 피어나서 마름 풀들과 어울려 곱게 떠있네

紫莖屏風 文緣波些 보라색 줄기들이 바람을 막아주고 잔물결에 은파가 일어나네

文異豹飾 侍陂陁些 기이한 무늬의 표범을 꾸미고 시종들은 섬돌 아래 늘어서있네

軒輶既低 步騎羅些 아름다운 수레들 항상 준비되어 있고 步兵과 騎兵들이 즐지어 서 있네

蘭薄戶樹 瓊木籬些 난초를 총총하게 문가에 심고 아름다운 나무로 울타리를 쳤도다

魂兮歸來 何遠爲些 혼이여! 돌아오라. 어째서 그렇게 먼 곳으로 갔는가?

<초혼>에 나타나는 미인의 유형과 化粧의 문화는 여성의 미모를 꾸미는 문화의 전형으로 초나라는 화장품의 기원을 보여준다. 이 美姬들과 어울려 유흥을 즐기는 문화는 향락의 기원이다. 이것은 현대판 초혼화 립살롱을 연상케 하는 유락문화의 원형들을 볼 수 있는 유흥의 극치였다. 아홉 제후들의 예쁜 딸들, 귀밑머리의 치장, 아름다운 살결 등의 표현에서 여색문화의 독특한 면이 드러난다. 사후에도 예쁜 미인들이 강조되고 있는 점은 특이하다. 이란 유흥의 조건을 가득채운 미인들이 궁궐에 가득하다. 이 미인들과 당대 건축의 미학이 총 집합된 최고로 아름다운 건축 공간에서 환락의 나날을 보내는 영혼의 안식처, 이것은 천당과 극락의 세계로 사의 찬미이다. 초나라 회왕이 살아서는 누리지 못한 것을 영혼은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꾸며서 영혼을 인도하는 허구이지만 부귀영화란 어떤 것이고 최고로 누릴 수 있는 인간의 행복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초나라 당대의 인생관이나 가치관 및 우주관을 엿볼 수 있는 당대 사상의 보고이다.

조선 구한말의 개화파 관료이자 문장가인 김윤식(金允植 : 1835~1922)은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17세에 掖庭署에 소속되어 화려한 옷을 입고 여러 소년들을 쫓아 청루에서 어울려 놀았다. 螭蛾·曼睩이 좌우에 늘어서 재주를 보이는데 노래하

는 자들 중에는 눈길을 보내고 마음속으로 좋아하여 그가 한번 돌아봐 주기를 바라지 않는 이가 없었다. 이 노인은 비움을 아끼지 않고 그 즐거움을 펼치기에 힘썼다. 이 때문에 여러 어울려 놀던 남녀들이 떠들썩하게 李別監이 멋있다고 얘기하였다.¹¹⁾

진아는 ‘螭首蛾眉’의 준말이다. 매미의 이마에 나방의 눈썹이라는 뜻으로 미인을 형용하여 이르는 말이다. 만록은 미인의 구슬 같은 눈동자가 발하는 빛, 즉 미인을 가리킨다. 宋玉의 〈招魂〉에 “아리따운 만록 눈동자가 빛나네.[蛾眉曼睩 目騰光些]”라고 나온다.

반짝이는 보옥이 연석과 뒤섞이고 寶光曖曖同燕石
겹겹의 상념이 초면처럼 복잡하네 意緒重重類楚綿¹²⁾

楚綿은 《楚辭》〈招魂〉에 “진나라의 배롱과 제나라의 실이여, 정나라의 면사가 얽히었도다.[秦篝齊縷, 鄭綿絡些.]”라고 한 데서 온 말로, 사람의 상념이 복잡한 것을 비유한다.

하물며 세상길의 험난함은 太行山의 羊腸嶺처럼 심하여 실은 곡식을 얻고 말 다리가 부러지는 수레가 앞뒤로 이어지니, 어찌 내가 이 산과 바다에서 노닐며 때로 수레에 오르고 때로 말을 부리며 은사의 계수나무 숲 안에서 마음 맞는 대로 정신을 기쁘게 하는 것과 비할 수 있으리오.¹³⁾

원문은 ‘叢桂’로, 叢生하는 계수나무를 가리킨다. 《楚辭》〈招魂〉에 “계

11) 『운양집』, 제7권, 傳, <琴師李元永傳>

12) 『송암집』, 제4권, 詩, <追述去冬未及清涼勝遊之懷, 謹拜上于退溪先生座下>, 百八韻.

13) 『어우집』, 제4권, 序, <贈表訓寺僧慧默序>; 況世路艱危 劇太行羊腸 覆粟折股 前後車相襲 豈比我山海之遊 或駕或御 適心怡神於叢桂中哉

수나무는 총생함이며, 산의 그윽한 곳이로다. 어엿하게 길이 굽었음이며, 가지가 서로 얽혔도다.[桂樹叢生兮, 山之幽. 偃蹇連蜷兮, 枝相繆.]”라고 한 데서 유래한다. 이는 원래 굴원(屈原)의 넋을 부르는 말로서, 전하여 고결한 은사가 있는 곳을 의미한다.

갈수록 초목이 점점 무성하더니 靡靡轉長薄
환히 트이며 봄 물결이 보이누나 曠然觀春濤¹⁴⁾

저분의 ‘長薄’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무성한 초목을 이른다. 《초사(楚辭)》〈초혼(招魂)〉에 “갈대 우거진 여강으로 난 길이며 왼쪽에는 초목이 무성하고, 강 따라 가다가 못 가운데 들어감이며 멀리 바라보니 아스라이 사람 없구나.[路貫廬江兮左長薄, 倚沼畦瀛兮遙望博.]”라는 구절이 보인다. 장박(長薄)을 지명으로 보기도 한다.

3.3. <飲食文化> ; 요리의 기원과 진수성찬의 맛과 멋의 문화원형.

室家遂宗 食多方些 온 가족 모두가 그대를 맞이하여 온갖 음식 정성들여 차
리네

稻粢穉麥 挈黃粱些 벼, 기장, 울벼, 보리를 노란 조와 섞어서 밥을 짓네

大苦鹹酸 辛甘行些 된장, 소금, 식초, 생강 시고 단 맛이 입안에 퍼지네

肥牛之臄 臄若芳些 살진 소의 근육을 익히니 고기 향기가 꽃향기 같네

和酸若苦 陳吳羹些 신맛과 쓴맛으로 간을 하여 맛난 뭇나라 국을 진열해 내어
놓네

聊鼈炮羔 有柘漿些 자라는 끓이고 양을 통째로 구우며 사탕수수를 짜서 즙을
만드네

14) 『삼산재집』, 제1권, 詩, <余既罷官即發海上之行程中有賦>

鵠酸臍鳧 煎鴻鵠些 고니는 양념을 뿌리고 들오리는 끓이며 조리고 지진 기
러기와 두루미도 있네

露鷄臍蠟 屬而不爽些 들닭과 큰 거북으로 고깃국을 끓이니 맛이 훌륭하여 먹
어도 물리지 않는구나.

糗糈蜜餌 有餼鯨些 달콤한 여러 떡들과 거기에 또 옛들도 있구나.

瑤漿蜜勺 實羽觴些 옥과 같이 흰 술과 꿀로 만든 단술을 술잔에 가득가득
서로 권하네

挫糟凍飲 酌清涼些 술을 걸러 맑은 술을 차게 마시니 술의 맛이 맑고도 시원
하도다

華酌既陳 有瓊漿些 화려한 술그릇이 항상 진열되어 있고, 또 맛난 술과 안주
가득하도다

歸來反故室 敬而無妨些 돌아오라 그대를 기다리는 고향 집으로 모두가 그대
를 공경하니 해가 없으리라.

이 부분은 천당의 음식문화를 엿 볼 수 있는 것으로 제사상에는 어떤
진귀한 음식들이 차려 지는 지를 상상하게 한다. 당대의 온갖 진귀한 음
식들이 정성스럽게 차려져서 영혼을 유혹하는 수법으로 창출된다. 이 부
분에서는 요리의 기원과 각종 음식문화의 원형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
들이 함의 되어 있다. 여기에는 주식이 되는 밥짓는 기술이 요구되고 있
다. 기장과 잡곡을 섞어서 지어내는 밥의 미학이 창출되고 있다. 특히 이
부분은 된장을 비롯한 각종 장류의 원형과 기원이 되고 있다. 이것은 음
식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위해 심화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소금과
식초 생강 등이 동원된 반찬의 다양한 요리법의 원형이 등장된다.

肥牛之臠 臠若芳些 살진 소의 근육을 익히니 고기 향기가 꽃향기 같네

소고기가 이때부터 구워 졌던가? 어느 소고기 구이가 이 정도로 멋있
게 표현되었는가? 소고기 요리 광고로 사용되어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명구이다. 소고기 구이가 맛있는 요리로 손꼽히고 있었다. 오나라 국, 이
것은 동양의 국 문화를 창출하게 한 근원이었다. 자라요리, 양고기 요리,
사탕수수에서 즙을 짜는 설탕문화 고니는 양념을 만들어 뿌린다는 양념
문화, 들오리는 끓이고 즐기고 지지는 요리 법의 원형과 변주, 기러기와
두루미 요리, 닭과 거북이 썩의 요리는 주로 국으로 요리되는 것으로 보
아 음식의 재료에 따라 요리법도 다양하고 특이하다. 특히 옛이 처음으
로 등장하고 달콤한 떡들이 등장되고 있어 흥미롭다. 이어서 옥 같이 흰
술이 빚어지고, 꿀로 만든 단 술은 감주의 기원이다. 곡식을 사용하여 술
을 빚고, 그것을 걸러서 술을 만드는 제조법의 기술도 묘사되고 있다. 술
을 차게 해서 마시는 법과 술의 맑은 맛과 시원한 맛으로 먹는 다는 술 문
화의 다양한 면도 엿 볼 수 있다. 술을 아름답고 화려한 용기에 부어 마시
는 것에서 화려한 술병과 술잔들이 등장되고 좋은 술과 어울리는 다양한
안주가 개발되는 장면들을 유추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고대 전국시대의
음식문화를 고찰할 수 있는 음식문화의 심연이자 보고이다. 이렇게 음식
이 총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초사의 초혼이 처음이다. 조선에서 수용되
는 양상을 보면 조선전기 권근은 다음과 같이 수용하고 있다.

병든 눈이 갑자기 보배인가 놀랐고 病眼忽驚看寶璧
마른 목은 경장을 마신 듯하네 渴喉欣得飲瓊漿¹⁵⁾

매우 좋은 음식을 말한다. 《楚辭》〈招魂〉에 “아름다운 술자리를 베풀
었는데, 경장이 적구나.”라는 구를 인용하고 있다.

15) 權近, 『陽村先生文集』, 제10권, 詩, <伏蒙 東殿賜柑橘>

샘물을 뜨면 경장처럼 차고 挹泉冽瓊漿
바다를 보면 흐린 기운 활짝 개리라 睨海滅遠氛¹⁶⁾

《招魂》에 “화려한 술잔 이미 베풀어졌는데 경장도 있네.〔華酌既陳 有瓊漿些〕”라고 한 구절을 인용하였다. 조선 중기 기대승은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책 더럽힌다고 거여 밀어 치우고 汗書推糗糶
소갈병 들면 제호가 생각나리 病渴憶醞醕¹⁷⁾

‘糗糶’는 초사 초혼에서 인용한 것으로서 떡의 일종으로서 꿀에다 쌀가루를 섞어 고아 만든 떡이라고 하는데, 星湖 李瀾은 <招魂賦>에, “糗糶와 蜜餌에 餛飩도 있다.”고 했는데, 王逸이 주하기를, ‘장황이란 것은 엿[餹]이다. 쌀가루를 꿀에 타서 구어 만든 것이 거여이고, 기장쌀로 만든 것이 밀이이며, 또 美餹이 있는데 이는 여러 가지 맛을 달게 갖춰서 만든 것이다.’ 했다. 그리고 朱子는, “寒具라.”고 했으며, 가산 임흥은, “이것은 세 종류로서, 거여는 蜜麵을 말린 것이니, 10월에 먹는 間爐餅이고, 밀이는 밀면보다 조금 윤기가 있는 것이니, 七夕에 먹는 蜜餅이며, 장황은 寒食에 먹는 한구이다.” 하였다. 이 말에 따르면, 밀면으로 만든 떡을 기름에 튀겨서 말린 것인데, 지금의 朴桂가 아니고 무엇이며, 조금 윤기가 있다는 것은 엿과 꿀을 곁에 바른 때문이니, 지금의 藥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런 따위를 우리나라 사람은 통칭 造果라고 하는데, 대개 진짜 과일이 아니고 가짜로 만든 것을 세속에서 모두 造果라고 말한다. 추측컨대,

16) 奇大升, 『高峯集』, 제1권, 詩, <送友人遊金剛山 因欲尋師>

17) 丁若鏞, 『茶山詩文集』, 제3권, 詩, <夏日述懷> 奉簡族父史曹參判.

처음에 밀면으로 과일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것인 듯하다. 그래서 이러한 이름이 있게 되었으며, 후인들이 그 모양을 본받아 만드는데 둥글면 그릇에 높이 쌓아 올릴 수 없으므로 모나게 끊어서 만들었지만 과일이라는 칭호는 오히려 남아 있는 것이다. 지금 풍속에도 祭享 때면 이 조과를 과일 사이에 진설하는 것으로 보아 더욱 징험할 수 있다.¹⁸⁾라고 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 구한말 勉庵 崔益鉉은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一泉金不換 金과도 바꾸지 않을 샘물 하나
虛往實歸人 비우고 가서 채워 오는 사람들
信矣瓊漿飲 경장음이란 말 믿을 만하고
彼哉麩米春 국미춘이란 술이 우습구나¹⁹⁾

《楚辭》<招魂>의 “화려한 술잔 이미 베풀어졌는데 경장도 있네〔華酌既陳 有瓊漿些〕”라고 하는 부분을 인용하고 있다. 이렇듯 조선 전대에 걸쳐 초사가 수용되고 있는 양상을 살펴 볼 수가 있다.

3.4. <音樂文化> : 시가의 고향, ‘女樂’의 享有, 樂章의 原形 그 그림자.

우리 문헌에 펼쳐지는 악장의 양은 우리예술사에 간과할 수 없을 정도

18) 『星湖僊說』, 제4권, 萬物門, <糗糶蜜餌> : 招魂賦云 糗糶蜜餌有餛飩些 王逸註 餛飩餹也 以蜜和米麩熬煎作糗糶 搗黍作餌 又有美餹衆味甘具也 朱子謂寒具也 可山林洪曰 自是三品 糗糶乃蜜麩之乾者 十月間爐餅也 蜜餌乃蜜麩少潤者 七夕蜜餅也 餛飩乃寒食寒具也 據此則蜜麩作餅油煎而乾者 非今之朴桂而何 其少潤者 沃以飴蜜故也 非今之藥果而何 此類東人又通謂之造果 凡非真而假為者 俗諺皆謂之造意者 隸切以蜜麩造為果品之形 於是是有名 後人妨其形圖 不能累高 故方坊為之 而果之稱猶存也 今祀享陳於果品之間 則尤驗矣

19) 崔益鉉, 『勉庵先生文集』, 제1권, 詩, <四月三日 與諸友 發金剛之行> 壬午.

로 많다. 그러나 악장의 기원을 언급하면서 예기 악기를 논하는 사람은 있어도 초사 <초혼>에 대해 언급하는 사람은 적다. 또 시경의 국풍을 제외하면은 모두가 제례 작악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초사 초혼에는 중국 고대의 악장의 그림자를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 동양의 예술사나 문화사, 문학사 등에서 간과 할 수 없는 요소들로서 그 중요성이 대두되는 문제이다. 초사 초혼은 방대한 작품이다. 여기서는 초나라 악장의 기원을 볼 수 있는 부분들만 추려서 분석하려고 한다.

肴羞未通	맛 난 음식들 차려놓고
女樂羅些	어여쁜 여악이 울려 퍼지네
鍾按鼓	종을 치고 북을 울리며
造新歌些	새로운 노래를 부르네
涉江采菱	<섭강> <채릉>을 연주하고
發揚荷些	<양하>를 노래하네
美人既醉	미인들은 이미 취하여
朱顏酡些	붉은 얼굴에 취기가 오르네
嫉光眇視	반짝이는 눈동자로 바라보네
目曾波些	두 눈에 눈물이 고이네
被文服織	곱게 장식한 옷을 입고
麗而不奇些	아름답게 잘 어울림이여
長發曼鬢	길게 늘어진 귀밑머리
豔陸離些	곱게 늘어 뜨렸네
二八齊容	팔 명씩 두 줄로 선 아름다운 미희들
起鄭舞些	일제히 일어나 정나라 춤을 추네
衽若交竿	옷깃을 나부끼며 장식을 흔들고

撫案下些	소반을 어루만지며 살포시 내려오네
竿瑟狂會	피리와 거문고가 격렬하게 연주되니
擯鳴鼓些	북들도 요란하게 울려 퍼지네
宮庭震驚	궁궐의 뜰에 음악이 진동하고
發激楚些	초나라 노래 <격초>가 울려퍼지네
吳歎蔡謳	오나라 노래 채나라 가요
奏大呂些	진나라 대려
士女雜坐	남녀가 서로 섞여 앉으니
亂而不分些	어지러워서分別이 없어라
放陳組纓	인끈 갓끈 풀어 던지고
班其相紛些	반상의 차별 없이 서로 어울려 노는 구나
鄭衛妖玩	정나라 위나라 아름다운 여인들
來雜陳些	모두 서로 어울려 노는 구나
激楚之結	<격초>를 부르는 아가씨
獨秀先些	홀로 빼어나서 맨 먼저 보이네

역사 속에는 언급되지 못한 것이 문학 작품 속에는 영롱하게 존재하는 것이 있다. 초사 초혼에 나타나는 ‘女樂’의 장면이다. 이 여악의 묘사 속에는 樂章의 기원이 될 만한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 있어 그 문학적 가치를 발하고 있다. 영혼을 유혹하는 유흥의 수작으로 이면에는 당시의 노래, 음악, 무용, 등 원시종합예술을 즐기는 초나라 고대 문화의 향연을 엿 볼 수 있다.

장강을 끼고 형성되는 초나라 유흥문화는 피리, 거문고, 북 등 온갖 악기들을 진설하고 흥겨운 잔치를 여는 악장의 기원이었다. 중화사상에서 제외된 남만의 오랑캐 음악으로 제외시켰다. 그러나 공자의 언급에서도 초나라의 <초사> 일부가 소개되기도 한다. 초사에는 유교정신에 의해 산

삭되지 않은 중국 남방의 문화에 대한 원형이 남아 있다.

<초혼>에서는 <섭강>, <채릉>, <양하>, <격초> 등의 노래가 연주되는 초나라 악장이 소개되고 초나라 풍류를 상상하게 한다. 무당은 온갖 아름다운 초나라 음악을 나열하여 영혼을 인도한다. 초나라를 천상의 낙원으로 설정하고 낭만성과 넘치는 아름다운 수사의 극치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여기서 소개되는 女樂의 樂舞는 악장의 그림자를 상상하게 한다. 여기에 등장되는

二八齊容	팔 명씩 두 줄로 선 아름다운 미희들
起鄭舞些	일제히 일어나 정나라 춤을 추네
衽若交竿	옷깃을 나부끼며 장식을 흔들고
撫案下些	소반을 어루만지며 살포시 내려오네

라는 구절은 천자의 제향 때 쓰는 八佾舞를 연상케 한다. 논어에도 팔일무와 정나라 음악을 소개하고 있다. 초나라의 풍속에도 이것이 있다는 것은 중화사상과 남방의 오랑캐 문화가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다. 특히 춤에 어울리는 복장과 장식으로 손에는 흥을 맞추는 기구가 들려져 있다. 여악의 공연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樂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이것은 유교경전이나 역사 속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고대 춘추 전국시대 악장의 기원이다. 초나라에서 행한 여악이건만, 오나라 정나라 등 당시 전국시대의 다양한 고대 국가의 음악이 융합되어 나타나는 점은 학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현상이다. 이것은 동양의 문학사나 문화사, 예술사에 길이 빛날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심화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석주 권필은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오유도 부르지 말고 吳歎且勿叫

촉현도 뜯지 말고 蜀絃且勿彈²⁰⁾

吳歎는 춘추 시대 吳나라의 노래로, 《초사》〈招魂〉에 “吳歎蔡謳”라는 시어를 인용 하였다.

3.5. <娛樂文化> 각종 놀이의 기원과 시와 술의 풍류 그 문화원형

菑蔽象棋	<菑蔽>놀이 <象棋> 바둑판
有六簿些	게다가 <六簿>놀이까지 있음이여
分曹並進	짝을 나누어 나란히 나아가네
適相迫些	서로 부딪혀도 물러설 줄 모르네
成梟而牟	주사위 놀이에 올빼미와 송아지
呼五白些	쌍륙 놀이에 <오백>을 외치네
晉制犀比	진나라 물소 뿔 주사위
費白日些	종일토록 주사위 놀이하며
鏗鍾搖箴	종을 치고 북을 흔들고
攄擘瑟些	비파를 연주하며 노는 구나
娛酒不廢	즐거이 술 마시며 파하지 않으니
沉日夜些	밤낮으로 술에 파묻혀 노는 구나
蘭膏明燭	난초 기름으로 촛불을 밝혀
華鐙錯些	꽃으로 장식한 촛대 위에 두는 구나
結撰至思	마음 속 깊은 정을 서로 읊조리니
蘭芳假些	난초 같이 아름다움이여
人有所極	사람들 지극한 바 있으니

20) 權泌, 『석주집』, 제1권, 五言古詩, <行路難>

同心賦些 같은 마음으로 시부를 짓는 구나
 耐飲盡歡 술을 마시며 기쁨을 다하니
 樂先故些 조상들과 일가친척들이 즐거워하네
 魂兮歸來 혼이여 돌아오라
 反故居些 옛날에 살던 고향으로

초사 <초혼>에는 영혼이 혼자 있는 고독함을 달래기 위해 온갖 놀이 문화를 나열한다. 여기에는 장기와 바둑을 비롯한 전국시대 오락문화의 기원을 볼 수 있다. 그 중에 <菟蔽>, <象棋> 등의 오락 문화에는 장기와 바둑을 연상하게 하는 오락과 기호 문화가 등장되고 있으며 특히 <六籥>은 주사위 놀이로서 전국시대에 주사위 놀이가 흥행했다는 기록이 흥미를 끈다. 주사위 놀이의 기원도 초사에서 유래한다. 초사 <초혼>의 이 부분은 초나라 놀이 문화를 총망라한 놀이문화의 보고이다. 이 속에는 놀이의 대상이 되는 선조와 일가 친척들의 영혼들이 모여 있는 사당 문화의 기원을 엿볼 수 있다. 여기에는 시작의 문화도 나열하고 있어서 고대 초나라 문화의 우수성을 다시금 되새기게 한다. 이런 면에서 <초혼>은 초나라 풍류를 망라하는 놀이문화를 소개하고 있어서 고대 놀이문화의 심연을 이루고 있다. <초혼>은 낭만과 문학의 심연이자 보고이다.

서거정은 다음 시에서 초사 <초혼>에서 놀이문화를 나열하여 영혼을 인도하면서 쌍륙놀이를 등장 시킨 것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아이들이 주사위 놀이로 효로를 다투느라 兒童博塞競梟盧
 온종일 마당가에서 큰소리로 외쳐대네 終日庭除大叫呼
 내 또한 소년 시절에 유희했던 사람이라 我亦少年遊戲者

평생을 두고 목저노를 면하지 못하누나 平生未免牧猪奴²¹⁾

梟盧는 주사위 놀이에 쓰던 도구의 그림 중에 부엉이 그림과 개 그림을 말하는데, 부엉이 그림의 꺾발이 가장 높고, 개 그림이 그 다음이라 한다. 杜甫의 <今夕行> 시에 “의기양양 큰 소리로 오백을 외쳐대며, 옷통 벗고 맨발로 뛰지만 효로는 이뤄지질 않네.[馮陵大叫呼五白 袒跣不肯成梟盧]”라고 하였다. 《杜少陵詩集 卷1》

牧猪奴는 돼지나 먹이는 놈이란 뜻으로, 아주 경멸하여 부르는 호칭이다. 《晉書》〈陶侃列傳〉에 의하면, 여러 參佐들 중에 간혹 술 마시고 유희나 하면서 일을 폐하는 자가 있자, 도간이 명하여 그 술그릇과 주사위 도구들을 빼앗아 모두 강물에 던져 버리게 하고 吏將에게는 매를 때리면서 이르기를, “주사위 놀이는 돼지 먹이는 놈이나 하는 유희이다.(桴蒲者牧猪奴戲耳)”라고 했다 한다.

杜甫가 咸陽 客舍에 있을 때 선달 그믐밤에 쌍륙놀이를 하며 시름을 잊었기 때문에 그 고사를 차용하여 이렇게 읊은 것이다. 그때 읊은 두보의 시 <今夕行>에 “오늘 저녁이 어떤 저녁인가? 한 해가 지나가누나. 밤이 이속토록 촛불이 밝으며 그냥 보낼 수 없으라. 함양의 객사에 아무 할 일 없으니, 서로 모여 쌍륙 놀이 즐겁게 노니노라. 마구 날뛰며 크게 소리쳐 오백을 외쳐보지만, 소매 걷고 발 굴러도 좋은 패는 잘 나오지 않네.[今夕何夕歲云徂 更長燭明不可孤 咸陽客舍一事無 相與博塞爲歡娛 馮陵大叫呼五白 袒跣不肯成梟盧]” 하였다. 五白은 쌍륙 놀이에서 다섯 개의 쌍륙이 모두 흰 면이 위로 올라오는 것이다. 쌍륙은 다섯 개의 패에 兩面 중에 한쪽에는 흑색을 칠하고 송아지(牛犢)를 그렸으며, 다른 한 쪽에는 백색을 칠하고 꿩을 그렸다. 이 다섯 패를 한 번 던져서 모두 흑색을

21) 서거정, 『사가시집』, 제40권, <觀雙六>

얻으면 ‘盧’라 외치는데, 이것이 가장 높은 점수의 패이고, 모두 백색을 얻으면 ‘白’이라 외치는데 이것이 그 다음 높은 패이다. 梟盧는 주사위 놀이에 쓰던 도구의 그림 중에 부엉이 그림과 개 그림을 말한다. 부엉이가 그려진 梟가 가장 점수가 높은 패이고, 개가 그려진 盧가 그 다음이라 한다.

詞賦의 文體는 楚辭에서 生成된다. 이것은 우리 문학사에 소략한 사부 문학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 한국 사부문학의 정수로서 그 가치가 높다.

<초혼>은 조선의 선비들에게 다양하게 수용되어 그 빛을 발산하고 있다.

4. 結論.

이상으로 초사 <초혼>을 다양한 문화적 방면에서 고찰하여 그 원형을 분석하고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수용 확산된 면면을 살펴보았다.

초사 <초혼>은 문화의 보고요 심연이었다. 천상의 세계인 지옥설과 천당설이 최초로 설정된 상상력과 창의력이 넘치는 작품이다. 작품을 분석하면 일 고찰이지만 사후세계의 혼백론, 귀신론 등 샤머니즘과 상례와 관련된 동양의 미학과 예학, 그리고 철학 등 동양학의 출발점이다. <초혼>은 묘도문자, 묘지명, 만사, 제문, 노포, 등 동양의 사후세계에 대한 문학예술의 기원을 말해준다.

초사 <초혼> 한 편만 이해하고 감상하더라도 장강문명의 문화를 말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초사 <초혼>실로 고대 문화가 압축되어 묘사되는 문화의 심연이요 보고이다. 초사 <초혼> 한 편은 동양 민속의 보고요 심연이다. 초사 <招魂> 한 편은 超越主意, 唯美主意, 浪漫主義, 快樂主義,

등 文藝美學과 文藝思潮의 本鄉이요. 住居, 建築, 園林, 裝飾, 飲食, 音樂, 女色, 등 東洋 文化의 原型이자 基源이었다.

초사 <초혼>은 난해한 작품이지만 일찍부터 문인들의 관심을 주도해 왔다. 서한의 사마천을 비롯하여 동한의 왕일 등 기원전부터 언급되기 시작해서, 중국의 광활한 역사 대대로 문학의 비평에서 빠질 수 없었다. <초혼>은 많은 문학 작품에 영향을 끼쳤으며 그를 모방한 작품도 그 수를 헤아리기가 힘들 정도이다.

<招魂>은 270句의 長篇 詩歌로서 <序辭>, <本辭-招魂辭>, <亂辭> 세 부분으로 構成되어 있다. <序辭>는 上帝, 곧 하늘님의 命으로 巫堂 무양의 口氣를 通해 靈魂을 引導하게 되는 問答式 構圖로 構成되어 있다. <本辭-招魂辭>의 前半부는 天地 四方에 온갖 惡靈들과 怪物들을 등장시켜 恐怖를 助長하고 무서운 地獄의 世界를 想像하여 靈魂이 살 수 없는 곳으로 設定하고 있다. 무서움과 恐怖를 助成하는 奇拔한 創意力과 想像力은 일찍이 없었던 文章 驅使力의 異體다. 後半부는 楚나라를 美化시킨 極樂世界를 追求하고 있다. 宮室의 建築에 대한 至極한 아름다움, 長江의 아름다운 自然條件과 온갖 琪花瑤草로 꾸며진 庭園, 亭子의 園林, 各種 飲食, 女色, 音樂, 遊戲 등 楚나라의 民間에서 流行하던 土俗 信仰과 多様な 民俗文化를 바탕으로 누릴 수 있는 人間界의 至極한 快樂 描寫를 통해 天上의 樂園으로 꾸며지는 對立的 構圖를 志向하고 있다. <亂辭>는 作品 속에 內在된 超越的인 世界觀과 靈魂의 不滅을 통해 想像되는 人生觀 그리고 價值觀 등이 새롭게 設定되고, 厭世主義와 快樂主義 浪漫主義와 唯美主義의 純粹한 感情의 流路를 통해 드러나는 아름다운 文章은 修辭力의 極致를 보여준다. <招魂>은 古代 詩歌의 傑作으로 楚辭 中の 壓卷이다. <招魂>은 偉대한 文學作品으로 그 文化的 位相과 文藝美學의 優秀性이 立證된 名品이다. 偉대한 作品은 受容되고 擴散된다. <招魂>은 朝鮮時代 文人들에 의해 愛誦되었고, 朝鮮의 輓詞에 <招魂>의 文句가 없

으면 詩가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多樣하게 受容되고 있었다. <초혼>은 다양한 장르에 수용되고 확산 되면서 조선의 문학 속에 앙금처럼 녹아서 영롱하게 그 빛을 발하고 있었다. 앞으로 초사 <초혼>에 대한 文化의 地 坪이 넓어지기를 期待한다.

[ABSTRACT]

A study on The 《Cho-sa(楚辭)》〈Chohone(招魂)〉's cultural topology and a pattern of acceptance in Joseon.

Shin, Doo-hwan(Andong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focuses on the cultural status and acceptance patterns of Joseon in the <Chosa(楚辭)-the Chohone(招魂)> written by Qu Yuan(屈原).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Chosa(楚辭)-the Chohone(招魂)>'s cultural topology and a pattern of acceptance in Joseon.

the <Chosa(楚辭)-the Chohone(招魂)> of the history is a repository and abyss of ancient cultural research.

In this work, various cultures of the afterlife enjoyed by the soul are uniquely introduced. The Chohone(招魂) is a repository of ancient cultural research in the Orient, closely observed from the perspective of a cultural archetype and variation.

The Chohone(招魂) is a work composed of methods of fear, comfort, fear, and conciliatory that enshrine heaven and hell in the process of bringing souls from the Qin Dynasty. In this work, the imagination of the horror monster, which is passed down as the concept of hell which develops into a unique structure, is the origin of the horror novel, and in the investigation of comfort and peace, the ancient Chinese culture, including shamanism of the early period, such as the Chamanism, food culture, music culture, play culture, etc., is richly introduced, thus

becoming the origin of the culture related to human death.

It was the first creativity in the afterlife variety of cultural flavors in the history of the Orient, and it showed the height of beauty to the praise of death. It has evolved into a common culture and spread to Korea and the rest of the East. The Chohone(招魂) has been accepted and diffused into numerous works as it continues to be read and criticized as an interesting work for later East Asian writers. Until recently, the theme of The Chohone(招魂) has spread to various cultural contents of entertainment, such as movies, pop songs and other genres of literary works.

The first story, "The Chohone(招魂)" is absorbed and diffused in various cultural and literary works related to human death, and it melts into various works of art such as a sentence for tombs and gravestones(碑誌類) in East Asia and shines brightly.

Key word : Qu Yuan, Cho-sa, the Chohone(招魂), cultural topology, a pattern of acceptance, the Joseon Dynasty

[참고문헌]

□ 기본자료

司馬遷, 『史記』, 北京, 中華書局, 1982.

劉向, 『楚辭』, 北京, 中華書局, 2010.

劉勰, 『文心彫龍』, 中華書局, 2012

徐居正, 『四佳集』, 한국고전번역원, 2008

金壽恒, 『文谷集』, 한국고전번역원, 2014

李晬光, 『芝峯集』, 한국고전번역원, 1996.

黃炫, 『梅泉集』, 한국고전번역원, 2010.

張維, 『谿谷集』, 한국고전번역원, 1994.

金允植, 『雲陽集』, 한국고전번역원, 2015.

權好文, 『松巖集』, 한국고전번역원, 1996

柳夢寅, 『於于集』, 한국고전번역원, 1996

金履安, 『三山齋集』, 한국고전번역원, 2018

權近, 『陽村先生文集』, 한국고전번역원, 1982

奇大升, 『高峯集』, 한국고전번역원, 1997

丁若鏞, 『茶山詩文集』, 한국고전번역원, 1982

李瀾, 『星湖僿說』, 한국고전번역원, 1978.

崔益鉉, 『勉庵先生文集』, 한국고전번역원, 1986.

權輶, 『石洲集』, 한국고전번역원, 1996.

□ 단행본

郭沫若, 『屈原賦今譯』, 北京:人民文學出版社1981.

周成華. 『先秦文學觀止』, 吉林大學出版社, 2010.

周建忠, 賈捷. 註評, 歷代名著精選集. 『楚辭』. 鳳凰出版傳媒集團, 鳳凰出版社. 南京. 2006.

□ 논문

유인영, 「楚辭,〈招魂〉篇의 儀禮에 대한 考察」, 석사학위논문, 西江大學校 大學院, 1987.

유인영, 「楚辭,〈招魂〉篇의 儀禮에 대한 연구」, 『종교연구』, 제3집, 한국종교학회, 1987, 179-210면.

申斗煥, 「楚辭 招魂의 受容 과 擴散」, 『東方漢文學』, 제76집, 東方漢文學會, 2018, 133-166면,

申斗煥, 「楚辭 '招魂'에 나타난 '地獄과 天堂'의 이미지」, 동북아시아문화학회. 카자흐스탄 국제학회 발표논문집. 2019. 55-83면.

접수일 : 2019. 11. 21 총평일 : 2019. 12. 17 게재확정일 : 2019. 12. 29